

콘텐츠 수출 규모 10조원대

지난해 수출액 전년보다 9.1% 증가 한화로 10조5000원 수준
방송 등에서 높은 증가율... 수출액 규모는 게임산업이 가장 커

콘텐츠산업의 수출 규모가 10조원대로 성장했다. 특히 방송과 애니메이션 등의 수출 규모가 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9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19 콘텐츠산업 통계조사'(2018년 기준) 결과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국내 콘텐츠산업 매출액은 전년 대비 5.6% 증가한 119조6066억원으로 집계됐다. 콘텐츠산업 매출액은 전년 대비 5.4% 감소한 애니메이션 산업을 제외한 전 산업에서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방송(9.5%), 만화(8.9%), 게임(8.7%) 등의 부문에서 매출 규모가 컸고 증가율도 높았다. 매출액 규모는 출판산업이 20조9538억원으로 가장 컸으며 이어 방송(19조7622억원), 광고(17조2119억원), 지식정보(16조2910억원), 게임(14조2902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수출 규모도 크게 성장했다. 2018년 국내 콘텐츠산업 수출액은 전년 대비 9.1% 증가한 96억1504만 달러를 기록해 한화로 약 10조5000억 원 수준을 차지했다. 국내 전 산업 수출액이 전년 대비 5.4%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높은 성장률이다. 또 콘텐츠산업 수출 규모가 52억7000만달러 수준이었던 2014년에 비해 4년 만에 2배 가까운 규모로 늘었다. 수출액은 방송(32.0%), 애니메이션(20.5%) 부문에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또 같은 해 콘텐츠산업 수입액은 전년 대비 1.3% 증가한 12억1977만 달러를 차지해 무역수지는 83억9527만 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흑자 규모도 전년도의 76억1009만 달러에 비해 증가했다. 수출액 규모는 게임산업이 64억1149만 달러로 가장 컸으며 이어 캐릭터(7억4514만 달러),

지식정보(6억 3388만 달러), 음악(5억6424만 달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류의 영향으로 콘텐츠산업 수출액은 5년간 연평균 16.2%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같은 해 국내 콘텐츠산업 종사자 수는 전년 대비 약 3.5% 증가한 66만7437명으로 전년 대비 약 2만2000여개, 최근 5년간 약 5만1000여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 수는 광고(10.6%) 부문에서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출판, 음악 산업은 전년 대비 각각 0.1%씩 감소했다. 콘텐츠산업 통계조사는 출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등 11개 산업에 대한 통계정보를 바탕으로 집계되는 국가승인 통계다. 신지원 문체부 문화산업정책과 서기관은 "무역수지가 전년보다 늘었고 방송 부문의 수출이 많이 늘어난 점이 특징"이라며 "해외 플랫폼 등이 많이 생겨나 대작 등이 해외로 나가면서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점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뉴스



남원시는 관광객들과 시민들에게 보다 더 생동감 있는 참여형 문화관광을 제공하기 위해 광한루원 완월정에서 오는 11월까지 평일 오후 2시에 다양한 공연을 선보인다.

생동감 있는 참여형 문화관광 제공

남원시, '광한루원 완월정의 우리소리 한미당' 11월까지

남원시는 관광객들과 시민들에게 보다 더 생동감 있는 참여형 문화관광을 제공하기 위해 광한루원 완월정에서 오는 11월까지 평일 오후 2시에 다양한 공연을 선보인다. 화요일 남원시립농악단의 흥겨운 농악한마당을 시작으로, 수요일 남원시립국악단의 광한루원 전통 소리청, 목요일 국립국악원의 광한루원 음악회, 금요일 판소리, 국악가요 공연 등으로 농악, 판소리, 국악 등 다양한 우리소리를 연출할 계획이다.

국립국악원의 '광한루원 음악회'에서는 많은 관람객들의 관심과 높은 만족도에 여러 차례 박수갈채를 받기도 하였으며, 쉽게 접하기 어려운 국악공연을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함께하는 점은 국악의 고장 원만의 큰 장점이라고 보인다. 남원시는 지난 6월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로의 전환에 따라 향토박물관을 재개관하였으며, 19일에는 항공우주천문대, 춘향문화예술회관, 춘향관도 재개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언박싱' → '개봉' 사용 제안

국립국어원, 새말모임서 대체어 선정

국립국어원은 최근 자주 사용되는 '언박싱'과 '소프트 파워', '하드 파워' 등의 단어 대신 '개봉' 또는 '개봉기', '문화적 영향력'과 '물리적 영향력'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지난 11월부터 13일까지 열린 새말모임에서 이같은 대체어를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몇년 전부터 온라인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신상품을 소개하는 '언박싱 리뷰(Unboxing Review)' 콘텐츠가 많이 눈에 띈다. 패션, 도서, 인테리어, 전자기기 등의 새 상품의 상자를 연다는 의미에서 비롯된 단어로, 언박싱 리뷰 콘텐츠는 상품 개봉부터 어떤 제품인지 세세히 살펴보고 구입 시 고려할 점, 참고할 점 등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채워져왔다. 특정 제품을 구입하기 전인 소비자들이 합리적 소비를 위해 많이 찾아보며 참고한다. 새말모임은 부적 사용이 늘어난 '언박싱'의 대체어로 '개봉' 또는 '개봉(기)'을 선정했다. 또 정보 과학이나 문화·예술 따위를 앞세워 상대방의 행동을 바꾸거나 저지할 수 있는 힘을 뜻하는 '소프트 파워' 대신 '문화적 영향력' 사용을 권했다. 반대로 군사력이나 경제력 등을 앞세워 상대방의 행동을 바꾸거나 저지할 수 있는 힘이란 의미의 '하드 파워'의 대체어로는 '물리적 영향력'을 제안했다.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은 "국민이 어려운 용어 때문에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쉬운 말로 발 빠르게 다듬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



진안군은 19일 진안군여성일자리센터에서 여성이 일하기 좋은 일터를 만들기 위해 전북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 주관으로 여성친화일촌기업 협약식을 가졌다.

여성 일자리 창출, 지역기업과 '맞손'

진안군, 여성친화일촌기업 협약 체결

진안군은 19일 진안군여성일자리센터에서 여성이 일하기 좋은 일터를 만들기 위해 전북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 주관으로 여성친화일촌기업 협약식과 여성일자리창출 협력회의를 가졌다. 전북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센터장 이운애)는 진안군 여성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환경을 구축하고 일자리창출을 위해 (주)건보, 주식회사 더짓갈, 주식회사 성안, 나눔재가복지센터, 진안 시니어클럽, 임마누엘재가노인복지센터, 호남지방통계청 전주사무소 기업들과 여성친화일촌기업 협약을 맺었다. 또한 이날 여성일자리 협력회의에 참석한 15개 기업 인사담당자와 관내 여성인력에 대한

적극적인 고용 실행과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처 확보 및 관련 기업 간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올해부터 달라지는 정부고용정책 및 일자리지원 사업 설명회와 직장문화 개선을 위한 이직용 노무사의 노무관리방안 컨설팅은 기업체에 맞춤형 지원 정보를 제시하여, 기업체 인사담당자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진안군여성일자리지원센터 한은숙 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경력단절여성들에게 취업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출산과 육아 등으로 경력 단절된 여성의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체에 적합한 여성 인력을 양성하여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민 기자

고창 문화예술 부문 공모 선정 잇따라

군, 문화공감 우수공연 등

고창군이 올해 문화예술 관련 중앙부처·단체 주관 공모사업에 잇따라 선정되면서 한층 수준 높은 공연프로그램을 선보인다. 19일 고창군에 따르면 최근 문체부, 문화예술회관연합회, 문화예술위원회, 전북문화관광재단 주관 공모사업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선정됐다. 먼저, '빙방곡곡 문화공감 우수공연 사업(문체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주관)'으로 국악의 멋과 흥이 가득한 창작가무극 '굿 세워라 금수야', 공연 내내 다이나믹한 연기와 예술성 있는 노래로 지루할 틈 없이 관객을 몰입시키는 코믹오페라 '버섯피자' 등이 선정됐다. 또 '우수공연 기획제작 사업'은 평생학습도시, 인문학도시 고창에 걸맞게 '높을고창, 시와 가곡에 불꽃! 시와 가곡의 밤' 로비음악

회가 선정돼 시와 가곡으로 고창의 가을을 물들일 예정이다. 특히 '2020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주관)'으로 선정된 '노는 토요일, 꿈꾸는 토요일'은 즐거운 지역 청소년 예술감상교육으로 문화예술 소양과 정서 함양, 감수성과 소통능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전망이다. 이에 더해 고창군은 '2020 공연장 상주예술단체 육성지원사업 공모(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화관광재단 지원)'에 3년째 연속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고창문화의전당과 공연예술단체(국악예술단 고창)간 상생협력으로 안정적 창작환경 속에 공연단체의 예술적 창작역량 강화와 우수 작품 제작과 발표를 통해 공연장 운영 활성화로 군민들에게 폭넓은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게 됐다. /고창=김경식 기자

무주 발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